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성 경 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학연구원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Stress in Parents of Adolescents

Sung, Kyung Mi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the scale to measure stress in parents of adolescents for primary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such as school nurses who work with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Methods:** The study design for the scale includ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Qualitative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parent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581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in grades 7 through 11 from 6 different middle and high schools. **Results:** Factor analysis revealed twelve factors explaining 59.1% of total variance. The final scale consisted of 3 sub-scales including 51 items: Adolescent domain (16 items/4 factors); Parent domain (20 items/5 factors); and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 domain (15 items/3 factors). The internal consistency was acceptable (Cronbach's $\alpha = .93$).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cale is useful to measure stress in parents of Korean adolescents. Als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basic data regarding adolescent parenting stress.

Key Words: Adolescent, Parenting, Stress, Scal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심리적 환경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생을 통해 지속되고 인간성장발달의 중요한 요소이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 청소년의 자아발달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인격형성의 기초가 된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습득하고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및 성격의 핵심이 되는 자아개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1991; Lee et al., 1990).

그러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신심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지나치게 처벌적이 되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신건강문제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Lerner & Steinberg,

주요어: 청소년, 양육, 스트레스, 도구

Corresponding author: Sung, Kyung Mi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816-15 Jindaero, Jinju 660-751, Korea.

Tel: +82-55-772-8246, Fax: +82-55-772-8222, E-mail: sung@gnu.ac.kr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과제번호 03-2011-0257).

- This study was the Basic Research Program whi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KRF 03-2011-0257).

투고일 2013년 7월 21일 / 수정일 2013년 9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25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09; Liles et al., 201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불안, 갱년기에서 오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가족 간에 갈등관계가 유발되고 있고, 한국 부모의 경우 지나친 학력 위주의 사회풍토로 인해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서구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로 인한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Kim, Lee, Kye, Park, & Park, 2002; Yoo, 2005).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부모는 여전히 아동 자녀에게 보여 왔던 부모의 역할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춘기 자녀로 하여금 강한 반발심을 갖게 하고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Van Doorn, Branje, & Meeus, 2011).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워 하며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유발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는 가족 전체가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Ha, 2004; Lerner & Steinberg, 2009; Yoo, 2005). 여러 선행 문헌에서 제시했듯이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기타 다른 정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심지어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Weissman & Talati, 2009; Weissman et al., 1999). 실제 최근 수년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10대 청소년 자살 원인도 학교 문제나 부모와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었다(Korean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12).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가정환경 특히 부모와의 갈등관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사업은 효율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Jin & Bae, 2012; Kim & An, 2008). 이에 본 연구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기엔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시도하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최근 몇몇 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 부모의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다른 변인보다 강력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Bornstein & Bradley, 2003; Kim & Moon, 2005; Yun, 2010).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고 양육을 지지해줌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아동 자녀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Abidin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가 있는데 이는 주로 영아와 아동의 발달기적 특성을 반영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분야의 국내 학자들이 이 도구를 변형하여 영아나 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로는 Sheras, Abidin과 Konold (1998)가 개발한 Stress Index for Parents of Adolescents (SIPA) 등으로 이는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차이가 검증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의 핵심적 역할자인 한국 부모의 자녀양육 경험을 조사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경험 내용을 규명하여 한국형 청소년 자녀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Kwon (2011)은 15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양육 스트레스 관련 학술지 논문 116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자녀 양육 관련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이 아동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편향적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경향은 국내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것이 주된 요인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모의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한국형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부모의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험내용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도출된 질적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GIRB-G2011-0015)의 승인을 받은 후 2011년도 10월부터 2012년도 2월말까지 실시되었다.

1) 면접 대상자

청소년 자녀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아버지 11명, 어머니 19명으로 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대상자는 주로 중간층의 경제수준(70%)과 고졸(43%)과(전문)대졸(43%)의 학력이었다. 대상자는 연구자가 접근이 용이한 2개 지역 대도시의 3개 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학교의 학부모에게 공문을 보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심층면접을 원하는 학부모를 모집하였다. 면접 대상자에게는 전화연락을 통해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면담시작 전에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면담 날짜를 정하고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내용에 대해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는 시점까지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부모나 자녀의 특성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특성의 부모를 포함하기 위해 연구자가 접근이 용이한 여러 도시의 국공립 6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각 대상 학교에 연구협조공문을 보내고, 보건(상담) 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보낸 뒤 본 사업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다음으로 대상자에게 연구참여 동의서와 설문지, 그리고 반송봉투를 우편으로 송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송달 후 반송된 기간은 5일에서 15일간이었다. 최종 설문조사 대상자는 581명이었으며 응답자 모두에게 1인당 5천원씩 송금하였다. 표본크기는 예상 문항 수(80문항)에 대한 검증력을 높이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가능한 크기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에 대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문항 간 상관관계가 강하고 요인이 분명한 경우 한 집단에 100~200명의 표본크기로 요인분석이 가능함(Tabachnick & Fidell, 1989)을 근거로 집단의 표본크기를 정하였다. 그러나 우편을 통한 자료수집으로 불성실 응답률이나 미회수로 인한 탈락률이 비교적 높을 수 있고, 특히 아버지

의 응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문응답에 동의한 305가정에 설문지 2부씩 총 610부를 발송하였으며 설문지 응답 후 반송된 자료는 모두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n=581). 자료 회수율은 학교장과 보건(상담) 교사의 협조로 96.8%로 높았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581명으로 아버지는 277명(47.7%) 어머니는 304명(52.3%)이었으며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먼저 대상자의 나이는 45세 미만이 258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5세에서 50세 미만이 230명(39.7%) 정도였다. 학력은 대상자의 254명(43.8%)이 고졸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의 대졸은 236명(40.6%)이었다. 직업은 아버지가 사무직 102명(36.9%), 전문관리직 85명(30.8%)이었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가 104명(34.2%)이었다. 가정 경제수준은 중간층으로 응답한 경우가 444명(75.5%)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초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509명(87.6%)으로 대부분이었고 이혼·별거·재혼 등은 72명(12.4%) 정도였다.

3. 도구 개발 단계

1) 심층면접을 통한 문항 개발

(1) 면접 질문 구성

양육 스트레스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환경적 맥락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상호교류, 자녀의 특성, 부모의 특성 등을 주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Compas & Williams, 1990; Sheras et al., 1998).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인 Abidin (1995)의 아동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부모의 고통,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특성의 세 가지 영역을 하위영역으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Sheras 등(1998)도 자신들의 도구(SIPA)에서 부모, 청소년, 그리고 이들의 관계의 차원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 도구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양육 스트레스 측정에 적합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임이 검증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도구의 이론을 토대로 스트레스 요인의 평가영역인 부모 영역, 청소년 자녀 영역,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관계 영역의 세 가지 하부영역을 심층면접의 주요 질문으로 사용하였다.

(2) 양육 스트레스 경험 탐색

한국 부모의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ther	Mother	Sub-total (%)
		n (%)	n (%)	
Age (year)	< 45	81 (29.2)	177 (58.4)	258 (44.5)
	45~49	126 (45.5)	105 (34.3)	230 (39.7)
	≥ 50	70 (25.3)	22 (7.3)	92 (15.9)
Education	High school	92 (10.5)	162 (21.4)	254 (43.8)
	College	126 (45.5)	110 (36.2)	236 (40.6)
	Graduate school	59 (21.3)	32 (10.5)	91 (15.6)
Job	Profession	85 (30.8)	54 (17.8)	139 (23.9)
	Office worker	102 (36.9)	60 (19.7)	162 (27.9)
	Salesperson	53 (19.0)	50 (16.4)	103 (17.4)
	Production worker	32 (11.5)	36 (11.9)	68 (11.9)
	Unemployed	5 (1.8)	104 (34.2)	109 (18.9)
Economic status	Low	20 (7.2)	19 (6.3)	39 (6.7)
	Middle	209 (75.5)	235 (77.3)	444 (76.4)
	High	48 (17.3)	50 (16.4)	98 (16.9)
Marital status	First Married	249 (89.9)	260 (85.5)	509 (87.6)
	Broken & Remarried	28 (10.1)	44 (14.5)	72 (12.4)
Total		277 (100.0)	304 (100.0)	581 (100.0)

위해서 먼저 스트레스 요인 평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심층면접을 위한 개방형 주 질문들을 작성하였다. 또한 세 가지 주 질문으로 자유롭게 면담을 진행하되 국내외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에서 사용된 양육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원인들을 괄호 안에 포함하여 면담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는 부가질문으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평가(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양육이 가장 어려운 자녀 대상)로 “당신은 청소년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으며 자녀의 개인적 특성, 대인관계, 학교 및 학업 관련 특성 등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부모 자신에 대한 평가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으며 본인의 성장경험, 개인적 특성, 부모로서 역할 경험, 대인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한 청소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로 “청소년 자녀와의 평소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였으며 상호 작용 시 자녀의 심리적 반응, 의사소통 양식, 문제해결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했다. 심층면접은 질적 연구의 경험과 20여 년간의 상담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면접은 참여자별로 1회 80여 분간 2~3회씩 하였으며, 장소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몰입하여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교 개인 면담실에서 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한 후 필사하고 바로 분석하였으며, 순환적 이해를 위해 필사된 내용은 요

약하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3) 내용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질적 자료는 개방형 질문을 위해 사용한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평가, 부모 자신에 대한 평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관계에 대한 평가의 3가지 영역을 범주로 연구자가 내용분석방법에 따라 1차 분석을 하였다. 분석단위는 두 개 어절 이상의 문구와 문장으로 하였으며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나열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 끼리 묶어서 주제를 명명하였다. 내용분석 시 의미 있는 내용을 단위로 대상자의 주관적 특이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경험내용 모두 주제어 명명과 범주에 포함되었다. 내용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된 결과는 내용분석에 경험이 있는 청소년 부모상담의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의미 있는 내용의 진술과 주제 도출에 대해 각각 검증을 받고 연구자가 이를 통합하여 수정한 후 동일한 전문가 2인에게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국문학자 1인으로부터 주제의 의미와 언어적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증받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범주별 주제를 모두 나열함으로써 청소년 자녀를 둔 한국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 내용을 확인하였다(Table 2). 그 결과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내용은 빈도에 있어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경험에서 먼저 부모의 청소년에

Table 2.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Parenting Stress

(N=581)

Subscales	Theme	Contents
Adolescent domain	Temper and emotional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ry that my child is too quiet, · My child is too violent to deal with, · My child gets upset easily when it doesn't work as one wished, · My child has severe emotional change, · My child is irritable,
	Relationship with frie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rvous for my child being lonely, · My child doesn't have a best friend, · My child has lots of friends to play with, · Worry that my child being bullied or teased, · Makes trouble in friend relationship issue · My child is popular among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child is not satisfied with teachers, · There is a teacher whom my child likes, · My child is not obedience to teachers, · My child gets pointed out by teachers,
	Academic achievement & school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child do best studying, · My child attend school life easily, · My child play truant and hook, · Worry that my child hates to go to school, · Worry that my child is careless with homework,
	Strength and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ry that my child is good at lying, · Proud that my child can handle difficult work, · My child has bad behavior (drinking, smoking, stealing, violence), · My child has bad temper · My child gives up easily, · My child is ethical, · My child needs challenging spirit,
Parent domain	Relationship with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erience with my parents effects the negative influence on child raising, · Want to resemble the child raising way of my father, · Want to resemble the child raising way of my mother, · Feel affection to my parents,
	Expressed emotion for chi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t angry easily to my child, · Regret my mistake to my child, · Have fluctuating emotion, · Have bright and positive personality, · Have emotional conflict with my child, · Strict to my child, · Fulfill my child's wants well,
	Relationship with sp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ve many conflicts in married life after my child being adolescent, · Parents agree on child raising, · Unable to express affection in married life after my child being juvenile,
	Social relation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n't make new friends easily, · Don't meet friends because of my child, · Feel lonely a lot, · Can't enjoy my life, · Not many people to meet except family,
	Self actu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ve up a lot of my life to raise my child, · Won't live like this if I can go back to the past, · Try to set my need to my child's need, · Have lots of cultural differences (food, hobby) between my child and me,

Table 2.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Parenting Stress (Continued)

(N=581)

Subscales	Theme	Contents
Parent domain	Competency to raising chi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n't give much help to my child. · Feel I'm not good parents. · Lead my child to good way well. · Happy to have an adolescent. · Know what my child wants. · My child asks me help first. · My child being wrong is all my fault.
	Parents' attitude to chi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nt to be closer to my child. · Have a sense of guilt to my child. · Angry to my child. · Respect my child's opinion.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 domain	Intim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child shows affection to me. · My child talks difficulties to me. · My child likes being together with family. · Happy to be with my child. · Talk a lot with my child. · Know my child's daily life.
	Sharing the interest about child's sexual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l uncomfortable of my child's sexual development. · My child talks about the interest about the opposite sex.
	The role between child's sibling re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l guilty for hating my child. · Don't interfere between my children. · My child thinks I'm not fair. · Need to be fair as parents.
	Child's attitude to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child asks my attention all the time. · My child outspeaks to me. · My child tries to make me feel good. · My child thinks she/he isn't loved by me. · My child often argue with me. · My child often ignores me. · Sometimes sleep fitfully and cry because of my child.

대한 평가영역에서는 자녀의 성격과 감정반응, 자녀의 친구관계, 자녀의 장단점 등 5개의 주제,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평가영역에서는 자녀에 대한 감정과 태도, 자녀양육의 유능감 등 7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영역에서는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감정과 태도 등 4개의 주제가 나타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경험은 3개 범주에서 모두 16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2) 예비문항 선정 및 내용 타당도 검증

연구자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한국 부모의 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내용분석법에 의해 양육 스트레스 경험으로 부터 도출된 의미 있는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반영하여 문장을 기술하였다. 문항 수는 자녀의 장단점, 자녀에 대한 감정표현, 자녀양육의 유능감 등의 경험에서 각각 7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기타 자녀의 친구관계 5개 문항, 배우자와의 관계 4개 문항, 자녀의 성 발달 공유 경험 2개 문항 등 모든 경험

에서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자녀의 성격과 감정반응에 대해서는 ‘내 자녀는 너무 조용히 지내서 걱정이다’, ‘내 자녀는 거칠고 폭력적이라 다루기 어렵다’, ‘내 자녀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잘 낸다’ 등이 있다.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내 자녀는 절친한 친구가 없다’, ‘친구들에게 왕따라 놀림을 당해서 걱정이다’, ‘내 자녀는 자주 친구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등이 포함되었다. 작성된 예비문항은 국문과 교수 2인에게 언어적 표현 및 내용의 유사성과 배타성을 검증받고 문장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청소년 정신보건전문가 4인, 학부모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상담전문가 2인, 청소년 정신건강 담당교수 2인으로 구성된 8인의 온라인 전문가 패널로 실시하였다. 문항이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으로 타당한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 ‘매우 타당하다’(4점)부터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3점 또는 4점을 선택한 전문가 수가 모두 7명 이상으로 문항별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80 이상이였다. 따라서 80문항 모두 Waltz & Bausell (1981)가 제시한 4점 척도의 내용타당도 지수인 .75를 초과하여 탈락된 문항은 없었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을 근거로 개발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80문항과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10개 문항을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양육 스트레스 예비측정도구는 3개의 하위 영역을 가진 4점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 시작 전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질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응답이 어려운 3개 문항을 최종 수정하였다. 도구의 점수는 전체 80문항 중 28개의 역 문항을 환산하여 총점을 내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일차 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도구내용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차 신뢰도 검증에서 내적일관성, 수정된 항목과 전체 상관계수 및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또한 본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검증에서 도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6개 문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74개 문항에 대해서만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으로 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값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1.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1) 문항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종도구의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문항 분석을 통해 하위 영역별로 기여도가 낮은 문항을 확인하였

다. 일반적으로 개별문항과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가 .30 미만인 문항이 이에 해당되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단계에서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다시 제거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질적 자료로 부터 도출된 예비문항이 3가지 하위영역별 요인으로 추출되기 전에 조기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관계수 .10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 .10 미만의 6개 문항만 삭제되어 일차도구는 모두 74개 문항이되었다. 일차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였다(Table 3).

2) 구성타당도 검증

(1) 요인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KMO=.889, $\chi^2=9833.97$ ($p<.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판정되어 문항분석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6개 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74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추출에서 고유 값은 1.0보다 큰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가장 큰 요인 적재치 값이 0.4 이상이면서 공통성이 0.4보다 큰 항목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74개 문항 중 51개 문항이 1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 요인들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 변량은 59.1%였다(Table 4). 열두 개 요인으로 추출된 문항들은 대부분 문항개발 과정의 하위 영역에 그대로 포함되었으나 청소년 영역의 2개 문항, 부모 영역의 4개 문항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영역의 요인 10번과 12번에 포함되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평가 영역은 자녀의 문제행동, 나쁜 기질이나 정서적 문제 등의 요인 1에서 요인 4까지로 이들의 총 설명 변량은 19.3%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평가 영역은 자아실현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유능감 등의 요인 5에서 요인 9까지로 이들의 총 설명 변량은 23.1%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간 관계에 대한 평가 영역은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 등 요인 10에서 요인 12까지로 3개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16.7%였다.

(2) 요인 명명

요인명명은 총 51개 문항의 12개 요인에 대해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평가 영역 중 요인 1은 자녀의 학교생활 2문항과 장단점 2문항 외에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1개 문항 등 모두 5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자녀의 기질과 감정상태 3개 문항, 자녀의 선생님과의 관계 1개 문항 등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어 '자녀의 부정적 기질과 정서적 문제'로 명명하였

Table 3. Preliminary Tests for Item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N=581)

Item contents	M±S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α if item is deleted
1. Worry that my child is too quiet.	1.9±0.69	.26	.94
2. My child is too violent to deal with.	1.4±0.56	.46	.94
3. My child gets upset easily when it doesn't work as one wished.	2.2±0.74	.46	.94
4. My child has severe emotional change.	2.1±0.70	.46	.94
5. My child is irritable.	1.7±0.61	.58	.94
6. Nervous for my child being lonely.	1.8±0.67	.50	.94
7. My child doesn't have a best friend.	1.6±0.61	.48	.94
8. My child has lots of friends to play with.	2.1±0.65	.21	.94
9. Worry that my child being bullied or teased.	1.4±0.51	.45	.94
10. Makes trouble in friend relationship issue	1.5±0.54	.44	.94
11. My child is popular among friends.	2.1±0.57	.40	.94
12. My child is not satisfied with teachers.	1.8±0.63	.49	.94
13. There is a teacher whom my child likes.	2.0±0.57	.27	.94
14. My child is not obedience to teachers.	1.7±0.61	.54	.94
15. My child gets pointed out by teachers.	1.7±0.58	.53	.94
16. My child do best studying.	2.3±0.75	.39	.94
17. My child attend school life easily.	1.8±0.51	.46	.94
18. My child play truant and hook.	1.3±0.52	.29	.94
19. Worry that my child hates to go to school.	1.3±0.49	.49	.94
20. Worry that my child is careless with homework.	1.6±0.68	.49	.94
21. Worry that my child is good at lying.	1.6±0.63	.49	.94
22. Proud that my child can handle difficult work.	2.1±0.58	.46	.94
23. My child has bad behavior. (drinking, smoking, stealing, violence)	1.2±0.44	.36	.94
24. My child has bad temper	1.5±0.65	.51	.94
25. My child gives up easily.	2.1±0.70	.50	.94
26. My child is ethical.	1.7±0.57	.44	.94
27. Experience with my parents effects the negative influence on child raising.	1.8±0.63	.48	.94
28. Want to resemble the child raising way of my father.	2.7±0.68	.13	.94
29. Want to resemble the child raising way of my mother.	2.5±0.66	.12	.94
30. Feel affection to my parents.	1.8±0.53	.36	.94
31. Get angry easily to my child.	2.2±0.61	.50	.94
32. Regret my mistake to my child.	2.6±0.63	.26	.94
33. Have fluctuating emotion.	2.2±0.63	.41	.94
34. Have bright and positive personality.	2.1±0.57	.40	.94
35. Have emotional conflict with my child.	2.0±0.61	.62	.94
36. Strict to my child. [†]	2.4±0.68	.06	.94
37. Fulfill my child's wants well.	2.2±0.55	.37	.94
38. Have many conflicts in married life after my child being adolescent.	1.9±0.68	.51	.94
39. Parents agree on child raising.	2.2±.061	.42	.94
40. Unable to express affection in married life after my child being juvenile.	2.0±0.64	.38	.94

[†] Deleted items for factor analysis; Total Cronbach's $\alpha = .94$.

Table 3. Preliminary Tests for Item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Continued)

(N=581)

Item contents	M±S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α if item is deleted
41. Don't make new friends easily.	2,1±0,59	.39	.94
42. Don't meet friends because of my child.	1,9±0,56	.36	.94
43. Feel lonely a lot.	2,1±0,60	.50	.94
44. Can't enjoy my life.	2,1±0,60	.47	.94
45. Not many people to meet except family.	1,9±0,59	.44	.94
46. Give up a lot of my life to raise my child.	2,1±0,66	.41	.94
47. Won't live like this if I can go back to the past.	2,3±0,72	.39	.94
48. Try to set my need to my child's need. [†]	2,7±0,59	-.03	.94
49. Don't give much help to my child.	2,0±0,51	.49	.94
50. Feel I'm not good parents.	2,0±0,55	.50	.94
51. Lead my child to good way well.	2,0±0,47	.48	.94
52. Happy to have an adolescent.	1,9±0,56	.54	.94
53. Know what my child wants.	2,2±0,54	.45	.94
54. My child asks me help first.	2,2±0,59	.38	.94
55. My child being wrong is all my fault. [†]	2,6±0,64	.01	.94
56. Want to be closer to my child.	1,8±0,49	.22	.94
57. Have a sense of guilt to my child.	2,0±0,61	.50	.94
58. Angry to my child.	1,9±0,63	.60	.94
59. Respect my child's opinion.	2,0±0,45	.54	.94
60. My child shows affection to me.	2,2±0,68	.45	.94
61. My child talks difficulties to me.	2,2±0,58	.43	.94
62. My child likes being together with family.	2,0±0,53	.59	.94
63. Happy to be with my child.	1,8±0,51	.58	.94
64. Talk a lot with my child.	2,2±0,64	.52	.94
65. Know my child's daily life.	2,1±0,59	.46	.94
66. Feel uncomfortable of my child's sexual development.	1,9±0,53	.49	.94
67. My child talks about the interest about the opposite sex.	2,7±0,66	.22	.94
68. Feel guilty for hating my child.	1,8±0,57	.48	.94
69. Don't interfere between my children. [†]	2,9±0,55	-.21	.94
70. My child thinks I'm not fair.	2,1±0,62	.53	.94
71. Need to be fair as parents. [†]	3,0±0,60	-.18	.94
72. My child asks my attention all the time. [†]	2,5±0,60	-.19	.94
73. My child outspeaks to me.	1,8±0,61	.58	.94
74. My child tries to make me feel good.	2,4±0,58	.33	.94
75. My child thinks she/he isn't loved by me.	1,8±0,57	.65	.94
76. My child often argue with me.	1,9±0,63	.51	.94
77. My child often ignores me.	1,7±0,61	.61	.94
78. Sometimes sleep fitfully and cry because of my child.	1,7±0,68	.45	.94
79. My child needs challenging spirit.	2,9±0,63	.14	.94
80. Have lots of cultural differences (food, hobby) between my child and me.	2,1±0,63	.40	.94

[†] Deleted items for factor analysis; Total Cronbach's $\alpha = .94$.

Table 4.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Both Parents

(N=581)

Category	Item number	Factor load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Adolescent domain	F1: Child's misbehavior												
	23	.79	-.03	.08	.01	-.01	-.08	.11	.02	-.00	.12	.21	.03
	18	.74	.06	.01	-.03	-.01	.18	-.00	-.02	-.01	-.06	-.01	.20
	19	.66	.23	.02	.20	.10	.12	-.03	.10	-.08	.10	.11	.07
	10	.56	.35	.06	.20	.14	.00	.05	.04	-.02	.02	.05	.07
	24	.56	.28	.20	.06	.08	.07	.08	.01	-.07	.21	.23	-.06
	F2: Child's bad temper & emotional problem												
	4	.13	.78	.06	.11	.10	-.03	-.05	.08	.04	.03	.27	-.01
	3	.07	.77	.13	.05	.01	.08	.06	.08	-.01	.02	.24	.03
	5	.21	.62	.13	.20	.11	.13	-.04	.09	-.03	.16	.20	.08
	12	.26	.52	.10	.06	.20	.13	.07	.01	.09	.07	-.00	.12
	F3: Child's achievement												
	16	.12	.11	.68	.06	.11	.15	.04	.12	-.09	.01	.01	.15
	22	.09	.03	.63	.14	-.01	.05	.17	-.06	.09	.24	.24	.22
	25	.17	.32	.61	.04	.20	.03	.01	.10	.00	.20	.01	.03
	79	-.10	.04	.60	-.05	.09	.05	-.08	.07	.12	.11	-.02	-.34
	F4: Child's relationship with friends												
	8	-.02	.04	-.02	.79	.04	-.03	.03	.01	.07	.13	.05	-.07
	11	.11	.13	.11	.74	.05	.03	.15	-.00	.02	.10	.10	.07
	7	.24	.21	.08	.63	.13	.20	-.01	.02	-.03	.11	.05	.06
Parent domain	F5: Difficulties of self-actualization												
	44	.02	.08	.06	.11	.80	.07	.11	.04	-.01	.07	.12	.00
	46	.03	.09	.07	.00	.70	-.01	-.01	.18	.00	.01	.19	.09
	45	.12	.04	.04	.10	.65	.15	.13	.00	.05	.01	.06	.15
	43	.07	.19	-.01	-.03	.65	.17	.16	.07	.08	.22	.01	-.03
	47	-.10	.05	.12	.05	.61	.24	.14	-.10	.08	.15	.02	-.09
	42	.13	-.03	.11	.02	.55	.03	-.03	.23	-.08	-.06	.18	.23
	F6: Competency to raising child												
	57	.11	.21	.04	.06	.18	.69	.01	.13	.10	.04	.16	-.04
	51	.04	-.04	.17	.11	.03	.61	.14	.12	.00	.33	.11	.12
	50	-.02	.05	.13	-.02	.16	.61	.31	.14	.03	.24	.06	.13
	49	.08	.01	.10	-.04	.19	.59	.32	.11	.09	.24	.08	.02
	68	.13	.09	-.07	.10	.23	.52	-.05	.03	-.03	.14	.21	.27
	F7: Parents' attitude to child												
	34	-.03	.01	.05	.00	.20	.14	.68	.16	.10	.19	.05	.12
	37	.08	-.02	.02	.12	.10	.13	.65	.11	.04	.20	.04	.06
	35	.16	.03	.06	.16	.18	.15	.53	-.40	-.07	.12	-.07	.05
	F8: Expressed emotion for child												
	31	.05	.22	.11	.01	.12	.17	.20	.70	-.01	.04	.19	.10
	33	.07	.22	.03	-.05	.13	.12	.36	.67	-.01	.10	.03	.03
	32	.05	-.09	.14	.12	.22	.24	-.23	.64	.07	.02	-.00	-.10
	F9: Parenting experience												
	29	-.08	.08	.01	.03	.03	.11	.01	-.02	.83	.03	-.09	.06
	28	-.04	-.05	.05	.04	.01	-.00	.04	.04	.72	.12	.09	-.04
	30	.02	.06	-.02	-.05	.17	.12	.21	.05	.49	.10	.12	.42

Table 4.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both Parents (Continued)

(N=581)

Category	Item number	Factor load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 domain	F10: Intimacy with her (his) child												
	61	.14	.03	.10	.06	.09	.06	.03	-.00	.05	.76	-.00	.02
	54	.11	-.08	.11	-.03	.05	.08	.15	-.03	.02	.75	.08	.01
	65	.07	.12	.07	.06	.05	.19	.09	-.01	-.02	.71	-.03	.15
	67	-.12	.05	-.01	.09	-.05	-.04	.00	.02	-.01	.68	-.05	.15
	60	.06	.01	.01	.06	.11	.01	.05	.04	.09	.66	.27	.08
	64	.04	.10	.11	.05	.11	.29	.11	-.03	.05	.65	.13	.04
	53	.05	.12	.08	.16	.05	.20	.20	.16	.10	.55	-.02	.00
F11: Child's attitude to his (her) parents													
	77	.14	.21	.03	.07	.18	.26	-.01	.08	.05	.17	.72	.13
	76	.17	.27	.05	.07	.13	.10	.15	.11	-.01	.02	.71	-.04
	73	.14	.25	.13	.05	.23	.12	-.01	.05	.01	.15	.68	.11
	78	.19	.20	-.03	.13	.30	.29	-.15	.03	-.04	-.05	.42	.15
F12: Concern about child													
	56	.04	-.03	-.04	-.05	.03	.10	.05	-.02	-.05	.21	-.02	.69
	17	.24	.16	.32	.16	.14	.03	.09	.05	-.07	.04	.11	.47
	66	.16	.15	.07	-.01	.31	.18	-.04	.11	.10	.18	.10	.46
	26	.15	.12	.29	.15	-.02	-.01	.21	-.13	.16	.15	.27	.42
Eigen value		2.89	2.86	2.09	1.96	3.50	2.67	2.01	1.85	1.74	4.10	2.46	1.96
Explained variance (%)		5.7	5.6	4.1	3.9	6.9	5.3	3.9	3.6	3.4	8.1	4.8	3.8
Accumulative variance (%)		5.7	11.3	15.4	19.3	26.2	31.5	35.4	39	42.4	50.5	55.3	59.1

다. 요인 3은 자녀의 장단점 3개 문항에 자녀의 학업성취 1개 문항이 포함되어 모두 4개 문항이 되었으며 ‘자녀의 성취력’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자녀의 친구관계’ 6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포함되어 그대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평가 영역 중 요인 5는 부모의 대인관계와 자아실현에 관한 문항 5개와 배우자와의 관계 1개 등 모두 6개 문항이 포함되어 ‘자아육구 실현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자녀양육의 유능감’에 대한 3개 문항 외에 ‘자녀에 대한 태도’ 1개 문항, ‘자녀 형제관계에서의 역할’ 1개 문항 등 모두 5개 문항이 포함되어 최종 ‘자녀양육의 유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자녀에 대한 감정표현’의 2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요인 8은 ‘자녀에 대한 감정표현’의 4개 문항이 포함되어 그대로 명명하였다. 요인 9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3개 문항이 포함되어 ‘과거 양육 받은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청소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영역의 요인 10은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 4문항 외에 자녀양육의 유능감 2문항, 자녀의 성 발달 공유 1문항 등 7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최종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1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 7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요인으로 추출되어 그대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12는 3가지 평가 요인 영역에서 모두 4개 문항이 추출되어 최종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명명하였다.

3) 신뢰도 검증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실시 후 수정된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을 다시 검증한 결과 첫 번째 하위범주인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평가 영역은 .85, 두 번째 하위범주인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평가 영역은 .90, 세 번째 하위범주인 부모의 청소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영역은 .84로 청소년 자녀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총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Table 5). 또한 검사도구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재검사의 기간은 피험자의 기억이 소멸되는 시점인 4주 후로 하였으며 회수율은 99.3%로 높아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사-재검사 결과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는 .89 ($p < .001$)로 도구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Table 5. Final Analysis of Internal Consistency

(N=581)

Categories	Factor	Items	Cronbach's α
Adolescent domain	F1	10, 18, 19, 23, 24	.78
	F2	3, 4, 5, 12	.77
	F3	16, 22, 25, 79	.61
	F4	8, 11, 7	.59
	Sub-total items		.85
Parent domain	F5	42, 43, 44, 45, 46, 47	.81
	F6	49, 50, 51, 57, 68	.78
	F7	34, 37	.63
	F8	31, 33, 32, 35	.68
	F9	29, 28, 30	.68
	Sub-total items		.90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 domain	F10	53, 54, 60, 61, 64, 65, 67	.84
	F11	73, 76, 77, 78	.80
	F12	56, 17, 66, 26	.67
	Sub-total items		.84
Total items			.9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으로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 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 일차적 선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요 심리적 환경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사정하고자 청소년 자녀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51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평소 부모 자신, 청소년 자녀,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경험하고 느낀 정도를 4점 척도 상에 표시하고 각 하위요인의 질문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자녀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부모의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신뢰도 수준이 Cronbach's $\alpha = .93$ 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검사-재검사의 신뢰도 계수도 .89로 도구의 안정성 역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Abidin (1995)이 개발한 부모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인 .84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본 연구의 최종 도구에 포함된 12개 요인의 51개 질문들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한국 문화권내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Abidin (1995)이나 Sheras 등(1998)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자녀와 부모 각각의 일부 특성과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의 질 등의 내용을 측정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는 부모 자신, 청소년 자녀,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서 보다 포괄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로 자녀의 성격과 감정반응, 친구관계, 학업성취, 장단점 등의 요인을 포함한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평가영역, 자신의 과거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나 양육의 유능감 등의 요인을 포함한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영역, 그리고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감정과 태도 등의 요인을 포함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 대한 평가영역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 것으로 대상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경험 내용이 반영된 문항들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최종도구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 자녀의 장·단점과 관련된 양육경험,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평가 요인에서 자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태도 및 자녀양육의 유능감, 그리고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 요인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감정 및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2개 하위 요인들 중 요인 1, 2, 3과 7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자녀양육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언급된 바 있다(Choe, 2005; Hwang, 2005; Shin & Chung, 1998).

한편 본 연구대상자들 중 일부 청소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부 간 갈등, 애정표현의 어려움, 자녀양육관의 차이 등의 스트레스 경험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도구의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이들 경험을 반영한 3개의 문항은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고 모두 탈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입시와 관련하여

부부관계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있거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이분화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Abidin (1992)이 부부 간의 관계가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으므로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사용 시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부간 관계의 어려움 등을 함께 평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일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의 문제 지각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본 도구의 하위 영역인 자녀에 대한 평가 요인을 어머니의 성격특성별로 조사해서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Chang, Han, & Jung, 2001). 그 외에도 본 연구대상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와의 성발달 공유의 경험이 다른 경험에 비해 상당히 빈곤하여 문항분석에서 탈락하였다. 이는 Yoo (2005)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와 성발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문화나 세대적 차이로 인해 훈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부관계나 자녀의 성발달 관련 문항의 탈락은 Sheras 등(1998)의 도구(SIPA)와 비교해 볼 때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그 개발과정에서 예비 조사 시 1차 문항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 조사에서 문항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점과 농·어촌과 도시 외곽 지역의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의 제한점이 있어 추후 이를 보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척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양육 스트레스 문제를 가진 청소년 부모를 선별해내고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이용하여 동시타당도를 검증해 보는 것과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을 함께 평가하는 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예측 타당도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양육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측정(Kim & Kang, 1997)이나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과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Kang, 2003) 등이 전부였으며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Kwon (2011)이 지적한 것처럼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르고 부모를 모두 포함한 질적 연구 등의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에 본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은 청소년

정신간호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 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신심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청소년기에는 정신건강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경험을 반영한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 문화에서의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험은 3개 범주에서 모두 16개의 주제로 요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청소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평가 영역, 부모의 자신에 대한 평가 영역, 부모의 청소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영역 등 3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된 총 51개 문항의 자기보고식 도구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과 조사-재조사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높은 편이었으며,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12개 요인의 설명력도 59.1%로 충분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한국 부모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잠재적으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청소년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일차적 선별도구로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일차정신보건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도구의 사용으로 추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중재 방안 마련에도 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rofessional manual*. Odessa, TX: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Bornstein, M. H., & Bradley, R. H. (2003).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in parenting seri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hang, E. J., Han, M. R., & Jung, C. H. (2001).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s' personality and their perception of children's proble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7*, 268-277.
- Choe, H. S. (2005). The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351-365.
- Compas, B. E., & Williams, R. A. (1990). Stress, coping, and ad-

- justment in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524-545.
- Ha, Y. H. (200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42-52.
- Hwang, H. J. (2005). *A study on influences and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tress and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Jin, H. M., & Bae, S. W. (2012).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Korean Youth Welfare Studies*, 14(2), 193-221.
- Kang, H. K. (2003). Parenting stress scale for parents of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2), 31-38.
- Kim, K.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K. W., & Moon, S. K. (2005).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parent -adolescent child relationship.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3(1), 71-84.
- Kim, M. C., Lee, J. W., Kye, S. J., Park, M. S., & Park, S. S. (2002). A study on different methods used to cope with conflicts between adolescent children and mothers. *Korea Journal of Life Science Research*, 17, 17-42.
- Kim, Y. H., & An, S. M. (2008). Family cohesiveness and adaptability, parents-child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s, adolescents' depression and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2), 1-30.
- Korean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12). *2008 Child & adolescent health report*. Retrieved August 20, 2012, from <http://stat.mw.go.kr/front/statData/mohwAnnalsWpView.jsp?menuId=14&bbsSeq=1&nttSeq=14620&nttClsCd=02&searchKey=&searchWord=&nPage=1>
- Kwon, M. K. (2011).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parenting stress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2), 29-50.
- Lee, C. J. (1991).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 Difference between and within parents. *Journal of Human Science*, 11(1), 29-45.
- Lee, C. J., Lee, O. K., Seo, B. Y., Yoon, J., Lee, C. C., Kim, C. K., et al. (1990).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Seoul: Jungang Chuksung.
- Lerner, R. M., & Steinberg, L. (2009).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3rd). Hoboken, NJ: Wiley.
- Liles, B. D., Newman, E., LaGasse, L. L., Derauf, C., Shah, R., Smith, L. M., et al. (2012). Perceive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mong prenatal methamphetamine user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3, 943-957.
- Sheras, P. L., Abidin, R. R., & Konold, T. R. (1998). *Stress index for parents of adolescents: Professional manual*.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hin, S. J., & Chung, M. J. (1998).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1), 27-42.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NY: Harper and Row.
- Van Doorn, M. D., Branje, S. J. T., & Meeus, W. H. J. (2011).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 four-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97-107.
- Waltz, C. W., & Bausell, R. B. (1981). *Nursing research: Design, statistics and computer analysis*. Philadelphia, PA: F. A. Davis.
- Weissman, M. M., & Talati, A. (2009). Depression in at-risk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2, 1167-1168.
- Weissman, M. M., Wolk, S., Goldstein, R. B., Moreau, D., Adams, P., Greenwald, S., et al. (1999). Depressed adolescents grown up.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1, 1707-1713.
- Yoo, I. Y. (2005). Parenting stress of adolescent children.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8, 17-22.
- Yun, K. Y. (2010).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upon high school students' relation of family and adjustment in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